

Kodex^{ETF}와 함께 만드는 Viewtiful Week

조수민 책임매니저
Vol.12 2025.01.08

Executive Summary

- 연말 약세 흐름을 보이던 미국 증시는 새해 들어 CES 기대로 반등하면서 낙폭을 축소
- 1월은 변동성 확대 요인 다수 존재. 개별 호재에 반응하는 순환매 장세 지속 예상
- AI 산업의 확장 내러티브 강화로 온기가 확산될 수 있는 관련 테마 ETF로 접근

●●● 이번 주엔 무엇을 볼까

산타렐리는 부재했으나, CES 기대감으로 반도체 중심으로 반등

뉴욕 3대 지수는 약세 마감했다. 주초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던 미국 증시는 CES 2025를 앞둔 기대감으로 반도체 주가 상승하면서 미국 증시는 낙폭을 축소했다. 월초 공개된 12월 ISM 제조업 PMI가 전월치와 예상치를 모두 상회한 점도 투자심리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그림 1]. 달러인덱스(DXY)는 109p선을 상회하기도 했으나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4.6%선 아래에서 마감하자 전주 대비 0.95p 상승한 108.9p로 마감했다. (2025. 1. 3, Bloombe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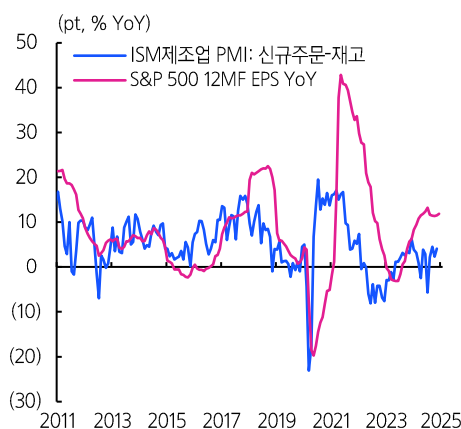
높아진 금리 속 개별 호재에 반응하는 순환매 장세 지속

지난해 S&P500 업종별 수익률을 분해해 보면, 상반기와 하반기 승자가 극명하게 갈렸다 [그림 2]. 상반기에는 AI 테마 대장주인 엔비디아를 필두로 한 IT 업종의 성과가 두드러진 반면, 하반기 들어서는 트럼프 수혜 업종으로 분류된 경기소비재(테슬라)와 금융 등이 시장 상승을 견인했다. 12월 들어서는 AI 소프트웨어와 브로드컴과 같은 ASIC(맞춤형 반도체) 테마가 상승하면서 AI 테마 내에서도 순환매가 나타났다. 한편, 새해가 시작되자 CES 2025 기대감으로 연말 부진했던 엔비디아 등 주요 반도체 기업들의 반등세가 강하게 나타나면서 주도권을 다시 가져올 기세다.

이번주는 매크로와 마이크로 이벤트 공존: 난이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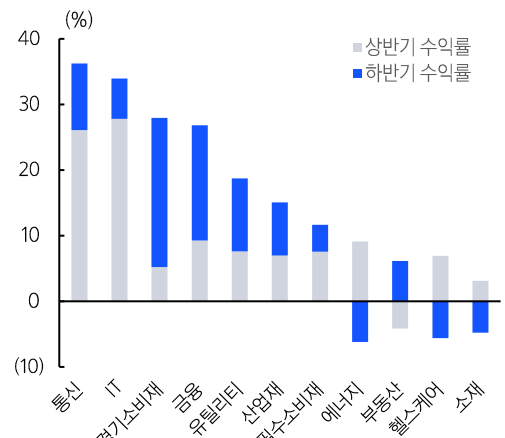
이번 주는 세계 최대 IT 전시회인 CES 2025(1/7~10)가 예정되어 있다. 올해 주제는 'Dive-in(몰입)'으로 한층 더 발전된 AI 기술이 공개될 것이란 기대가 상당하다. AI가 접목될 수 있는 로봇틱스, 모빌리티, 디지털 헬스케어, 양자컴퓨팅 등에 관련된 전시가 주식시장에 상승 재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한편, 주 후반에는 고용보고서(1/10)가 예정되어 있다. 애틀란타 연은Now모델의 4분기 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3.1%(12/24) → 2.4%(1/3))으로 낮아진 경기 낙관론이 재차 강화될 수 있어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4.6%를 상회하는 등 높은 레벨을 유지하고 있어 현 수준에서의 금리 변동성 확대는 위험자산 선호 심리를 약화시킬 수 있다.

[그림1] 신규주문 4개월 연속 상승



※ 자료 : Bloomberg, 삼성자산운용

[그림2] S&P 500 업종별 수익률 분해



※ 자료 : Bloomberg, 삼성자산운용

●●● 삼성 Kodex Vie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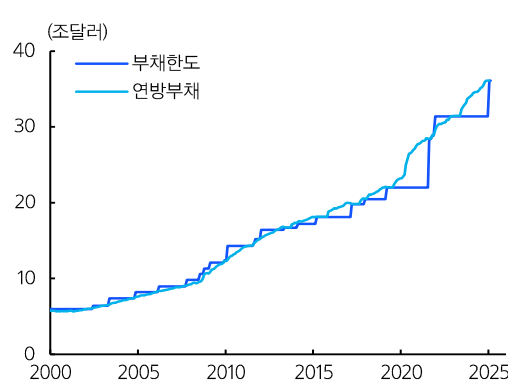
1월:
조정 빌미를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변수 존재

1월에는 미국 증시의 변동성을 확대시킬 수 있는 다수의 변수들이 존재한다.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식(1/20)이 다가오면서 보편적 관세 부과 전망이 부상할 경우 시장 금리가 더 높아질 수 있다. 1월 2일부터 적용되는 부채한도도 부담이다[그림 3]. 엘런 재무장관은 1월 2일부터 부채한도가 적용되면 1월 14일에서 23일 사이에 부채한도에 도달할 것이라고 경고한 상태다. 재무부 계정 잔고가 7,219억 달러로(1/1 기준) 아직 현금 여력이 충분한 상태지만, 부채한도 협상 과정에서 잡음이 발생할 경우 차익실현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

CES 2025:
AI 산업 확장 내러티브
강화 계기 마련될 것

하지만, 언제나 늘 그렇듯 증시는 불안의 벽을 타고 오른다. 지난 3일 마이크로소프트가 올해 6월까지 약 800억 달러를 AI 데이터센터에 투자하겠다고 밝히면서 AI 인프라 투자 기대감이 되살아났다. 엔비디아는 최근 AI 워크로드 관리 플랫폼 스타트업 Run:ai 인수를 완료하는 등 AI 생태계 내 영향력 확대를 시도 중이며, CES에서는 차세대 GPU ‘지포스 RTX 50’ 시리즈를 발표할 예정이다. CES를 거치면서 엔비디아의 독점적 지위가 재부각 될 경우 시장 주도주로 재부상할 수 있다. 하지만, 폭발적으로 빠르게 성장하는 산업에서 승자를 속단하기란 불가능하며 영원한 승자도 없다. ETF의 매력이 부각되는 순간이다. AI 산업의 확장 내러티브 강화로 온기가 확산될 수 있는 미국 반도체와 전력 인프라 테마 그리고 변동성 국면에 대비한 헤지 성격의 미국 대표 지수 OTM 커버드콜 전략에 관심이 필요하다.

[그림3] 미국 연방 부채 추이



※ 자료 : Bloomberg, 삼성자산운용

[그림4] 엔비디아가 지분 투자한 기업들

종목	티커	출처	포지션
기술			3,691,667
ARM Holdings PLC - Depository Receipt	ARM US	13F	1,960,784
SoundHound AI Inc Class A	SOUN US	13F	1,730,883
통신			11,443,083
Serve Robotics Inc	SERV US	13F	3,727,033
어플라이드 디지털	APLD US	13F	7,716,050
헬스케어			7,765,995
Recursion Pharmaceuticals Inc Class A	RXRX US	13F	7,706,363
Nano-X Imaging Ltd	NNOX US	13F	59,632

※ 자료 : Bloomberg, 삼성자산운용

●●● Viewtiful Week를 위한 삼성 Kodex ETF 3

01 Kodex 미국반도체MV (종목코드:390390)

AI인프라 투자 모멘텀에 수혜가 예상되는 대형 반도체 기업들에 투자

- SMH와 동일한 기초지수 사용. 한 종목의 비중 상한을 20%로 설정한 ETF
- 주요 투자대상: Nvidia, TSMC, Broadcom, ASML, AMD 등
- 합성총보수 : 연 0.1767%, FY2023 기준 증권거래비용 0.06% 발생, 위험등급: 2등급(높은 위험)

02 Kodex 미국AI전력핵심인프라 (종목코드:487230)

글로벌 AI전력, 인프라 산업 중심에 있는 미국 AI전력인프라 기업에 투자

- AI로 촉발되는 전력 슈퍼사이클의 핵심 종목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한 ETF
- 주요 투자대상: GE Vernova, Arista Networks, Vistra Energy, Constellation Energy 등
- 총보수 : 연 0.45%(운용 0.419%, AP 0.001%, 신탁 0.02%, 사무 0.01%), 위험등급: 2등급(높은 위험)

03 Kodex 미국S&P500 데일리커버드콜OTM (종목코드:0005A0)

S&P 500 데일리 1%OTM 콜옵션 100% 매도 전략 월배당 ETF

- 매일 1%까지 시장 상승 참여+옵션 프리미엄 수취 추구
- 연간 분배한도 최대 15%(월간 1.25%), 옵션 프리미엄 분배한도 초과분은 재투자
- 총보수 : 연 0.25%(운용 0.219%, AP 0.001%, 신탁 0.02%, 사무 0.01%), 위험등급: 1등급(매우 높은 위험)

※ 삼성자산운용, 2025년 1월 7일 기준※ 증권거래비용, 기타비용 등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상기 내용은 향후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Compliance Notice

- 본 자료와 관련한 저작권은 삼성자산운용에 있으며,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본 자료를 복제 및 배포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 본 자료는 참고 자료로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각종 자료와 통계 자료를 이용하여 작성된 것이나 본 자료의 내용이 향후 결과에 대한 보증이 될 수 없으며, 본 자료를 본래의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했을 때 삼성자산운용은 이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본 자료에서 소개하는 투자방법은 개별 투자자들의 특수한 상황을 감안하지 않은 일반적인 내용으로써, 본 자료를 참고한 일체의 투자행위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투자자의 결정에 의하여야 하며, 당사는 투자자의 판단과 결정, 그 결과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외화로 표시되는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환율변동 시 자산 가치가 변동되거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자료를 삼성자산운용 이외의 자로부터 입수하였을 경우, 자료 무단 제공 및 이용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해당 제공자 및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 집합투자증권을 취득 전 투자대상, 보수, 수수료 및 환매방법 등에 관하여 (간이)투자설명서 및 집합투자규약을 반드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집합투자증권은 자산가격 및 환율변동, 신용등급 하락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0~100%)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금융상품판매업자는 금융투자상품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투자에 앞서 그러한 설명을 충분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 연금 외 수령시 세액공제 받는 납입원금 및 수익에 대한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되며, 연금저축계좌 관련 세제는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익금 분배 방식은 투자 결과에 따라 월지급액이 변동될 수 있으며, 이익금을 초과하여 분배하는 경우 투자 원금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 이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이 자료의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 배포, 전송, 변형될 수 없습니다.